

마스크 쓰고 다중이용시설 피하고...설 덮친 '우한 폐렴 공포'

귀경객 몰린 송정역 불안감 속 곳곳 손 세정제 비치
광주공항 편의점 마스크 등나고 병원 방문안 제한
중국인 관광객 많은 제주도 가족여행 취소하기도

"승객들은 기침할 땀 옷소매로 가려주시고, 꼼꼼하게 손을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귀경객들이 몰린 광주 송정역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대합실 곳곳에는 손 세정제가 비치됐다.

열차를 타기 위해 송정역을 찾은 시민과 광주로 귀경한 시민 상당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도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승객 안내를 도왔다.

이날 용산에서 KTX를 타고 광주로 내려왔다는 김영길(66)씨는 "용산역 약국에서 아내와 함께 마스크를 구매했다"며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동하다 보니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송정역 내 편의점도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면서 편의점 마스크는 금방 동이 났다. 편의점 직원들은 창고에서 여분의 마스크를 꺼내와 진열하느라 바빴다.

비슷한 시각 광주공항에서는 편의점에 마스크가 등나 이용객들의 불평도 잇따랐다.

양수훈(48)씨는 "급하게 나오느라 마스크를 못 샀다"며 "공항 편의점에서 구매하려고 했지만 마스크가 다 떨어져 구매하지 못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귀경길에 오르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불안과 우려를 호소했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광주송정역에서 귀경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 명절 연휴 내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가 확산하면서 이용객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특히 27일 국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비행기와 철도, 버스 등을 이용하는 귀경객들 사이에선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다.

또 가족·친지가 한자리에 모인 연휴기간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수시로 전송되면서 즐거워야 할 명절에 '우한 폐렴' 공포가 떨어야 했다.

여기에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신 자녀와 손주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였다. 각 병원들

이 우한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면회를 제한하는 등 예방 조치가 나섰기 때문이다.

김현정(여·42)씨는 "명절 때마다 온 친지가 함께 할머니가 계산 요양병원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올해는 가족 일부만 병원을 다녀왔다"며 "어린 아이들이 있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을 비롯해 대형병원들은 지난 24일부터 인가받은 보호

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방문안을 제한했으며, 병원 본관 입구와 응급실을 제외한 병원 건물 전체를 통제할 상태다.

이밖에 광주·전남 각 병원들도 입원환자의 면회를 제한하는 등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영화관·백화점 등 방문 인구가 많은 다중 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설 명절을 기점으로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 손바닥, 손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땀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중국 유행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 동물(금류 포함) 접촉 금지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지속 금지
- 가림 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유행지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

해남서 외국인 근로자 3명 '설날 화재 참사'

신안 해상에서 선원 실종
어린이보호구역 음주 뺑소니
광주·전남 사건사고 잇따라

설 당일 한낮에 발생한 화재가 외국인 근로자 3명의 목숨을 앗는 등 설 연휴 광주·전남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설 당일인 지난 25일 오후 3시 40분께 해남

군 현산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주택 내부 66㎡를 모두 태운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태국인 A(29)씨 등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졌다. 남성 1명은 큰방에서, 2명은 화장실 안에서 각각 발견됐다.

불이 난 주택은 김 공장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했던 숙소다. 숨진 A씨 등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부터 해당 주택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감식반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감식을 진행하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께에는 신안군 압해읍 구레도 동쪽 370m 해상에서 어선 A호(19t)의 선원 B(53)씨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실종된 선원 B씨는 지난 25일 새벽 3시 30분께 침실에서 동료 선원에 의해 최종 목격된 이후 실종돼 선장이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께 장성군 한 주택에서 동생이 평

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다투다가 흉기로 팔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C(61)씨가 구속됐다.

또 광주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D(40)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지상 혐의로 구속됐다. D씨는 지난 23일 밤 11시 20분께 광주 서부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E(7)양을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E양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원 선용금 가로챌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구속

선주들로부터 받는 선원들의 임금인 '선용금'을 가로챌 40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선주들의 상황을 악용해 선원을 공급해줄 것처럼 속이고 선용금만을 가로챌 후, 도주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목포, 인천 일대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주들에게 선원들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소개비 및 선용금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약 2억 5000만 원을 가로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상에 정박한 어선에 올라가 자신이 소개했던 선원을 무단으로 하선시킨 후 다른 어선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선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독 전 순천대 교수 파면 정당"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1·2심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처분이 재판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끔찍한 여자들도 사실 다 가까이 있다가 따라다니 거야"라고 발언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2017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 로비 명목 1억 받은 변호사 항소심도 실형

검찰 로비를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4월 사무

장 병원 사건 의뢰인 B씨에게 수입료와 별도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담당 검사가 내가 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불 하나 주고 가라고 했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학 여자화장실 1년간 70여차례 드나든 40대 남성 '털미'

○서울의 한 대학캠퍼스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드나든 40대가 잠복수사에 나선 경찰에 털미를 잡혀 경찰서행.

○27일 서울방배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41)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7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 한 대학 캠퍼스 여자화장실에 드

나들었다는 것.

○"어떤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신고가 필요일마다 접수되자 경찰은 월요일인 지난해 11월 18일 해당 장소에서 잠복근무 끝에 A씨를 적발했는데, 경찰관 계자는 "CC-TV 영상 1년치를 분석해 A씨가 상습적으로 화장실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해 최근 기소했다"고 설명. /연합뉴스